

아펜젤러의 성경 번역, 1885~1902년 — 서울 번역, 비평 본문 도입, 구약 번역의 선구자 —

옥성득*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에서는 아펜젤러(H. G. Appenzeller, 1858.2.6.~1902.6.11.)의 한글 성경 번역 관련 세 가지 주제를 검토한다. 2장에서는 1885년부터 1902년까지 선교사 사역 기간에 아펜젤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번역했는지 그 공헌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번역 논쟁점에서 그가 취한 입장을 규명한다. 3장은 아펜젤러의 번역 대본과 성서 비평 본문의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해방 이전 구약 번역의 대본과 비평 본문 문제를 간단히 검토한다. 4장은 아펜젤러가 1897년 2월부터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매주 주일 성경 공과 공부를 위해 구약 본문을 발췌 번역하고 게재한 번역을 한글 구약 번역의 한 효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장은 기존 연구의 재정리로 일부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은 있으나 새로운 주장은 없다. 반면 3장과 4장은 기존 이해를 반박하는 주장들이 들어가 있다. 아직 아펜젤러의 성서 번역 공헌을 하나의 일관된 논문으로 정리한 글이 없으므로, 이 논문이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아펜젤러의 어머니 마리아 게하르트는 펜실베이니아 랭캐스트 지역의 메노나이트(재세례파)로 평생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수더턴(Souderton)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펜실베이니아 독일어’만 사용했다. 메

* Boston University에서 기독교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기독교학 석좌교수. sungok@hotmail.com.

노나이트는 성경공부를 중시했으므로, 마리아는 주일 오후 세 자녀를 앉혀 놓고 루터역 독일어 성경을 함께 읽었다.¹⁾ 따라서 아펜젤러는 집에서는 독일어,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며 자랐다. 이런 성경 중심의 경건성과 이중언어 구사력이 그가 선교사가 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1885년부터의 한글 성경 번역에 도움이 되었다. 아펜젤러는 영어, 독일어, 그리스어에 능했고, 언더우드와 더불어 한글 신약 번역과 초기 구약 번역에 기여했다.

아펜젤러의 부친은 개척교회 교인이었으므로, 아펜젤러는 어릴 때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외우며 신앙을 키웠다. 이는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를 조화시킨 요리문답서로 1614년 도르트대회에서 개척교회가 공인했고,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인정했다. 아펜젤러는 1872년 세례와 견신례를 받았다. 1878년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랭캐스터에 있는 개척교회의 프랭클린마셜대학(Franklin and Marshall College)을 다녔으며 1882년에 졸업했다. 그런데 그는 감리교인과 친했고, 1879년 랭캐스터 제일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감리교도가 되었다. 그곳에는 독일어에 능한 독일계 감리교인이 많았다.²⁾

어머니로부터 종교개혁 급진파(좌파)인 메노나이트 신앙과 우파인 루터주의를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 개혁주의(칼빈주의) 신앙을, 본인의 경험에 따라 웨슬리주의를 수용한 청년 아펜젤러는 에큐메니컬 신앙을 키워나갔다. 아펜젤러는 백인 중산층 출신이었지만, 언더우드와 같이 전형적인 앵글로색슨 양키는 아니었다.³⁾ 뉴저지의 광활한 농촌과 중소 도시의 문화, 이민 공동체와 다중 언어, 경건한 가정, 학문적인 대학, 교회 연합적인 신앙 등의 배경에서 성장한 아펜젤러는 한국에서 장로회와 감리회와 성공회가 연합 사업으로 시작한 한글 성경 번역 사업에 첫 북감리회 선교사의 한 명으로 참여했다.

아펜젤러가 드루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진은 1881년에 출간된 영국 캠브리지의 두 성서신학자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트(F. J. A. Hort)의 그

1) W. E. Griffis,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New York: Revell, 1912), 61-63.

2) 중국 감리회 초기 선교사의 한 명으로 푸초우에 파송되어 매클레이와 14년간 활동하다가 서울로 전임되어 배재학당 교사로 봉사하고 한미화활판소를 세우고 정동제일교회 2대 목사로 시무한 올링거(F. Ohlinger) 목사도 이 지역 독일계 감리교인 출신이었다. 한국 감리회가 초기에 영어 교육, 기독교 문명론 선교 정책을 취한 것은 매클레이-올링거-아펜젤러-스크랜턴 노선이다. 아펜젤러와 같이 메노나이트 배경에서 자란 한국 선교사는 성공회의 첫 의사 선교사인 랜디스(E. B. Landis)였다. 그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의대를 나와 한국에 온 유일한 미국 성공회 선교사로 제물포 성누가병원 원장으로 시무했다.

3) 언더우드도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1.5세로 뉴욕에 이민을 왔으며, 화란 개척교회 신학교를 다니면서 구세군 활동에 참여하고 부흥 집회를 여는 다중적 신앙의 교회 연합적 인물이었다.

리스어 신약과 옥스퍼드판 영어 개역본(RV) 신약전서의 비평 본문을 수용하고 가르쳤다. 아펜젤러는 1885년 한국으로 올 때 70여 권의 책을 화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는 웨스트코트의 <신약 정경 형성사 개론>(General Survey of the History of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1881년 판과 셀러리(J. E. Cellier)의 <성서 해석학>(Biblical Hermeneutics, 1881)이 있었다.⁴⁾

2. 아펜젤러와 신약 번역

아펜젤러의 신약 한글 번역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네 시기가 있었다. (1) 이수정 역본 개정, 1885~1893년, (2) 로스 역본 개정, 1889~1890년, (3) 번역위원회 역본 신약 번역, 1891~1902년, (4) 구약 개인 역, 1897~1902년. 시기별로 그의 번역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2.1. 이수정 역본 개정, 1885~1893년

이수정 역본 마가복음은 다음 네 가지가 발간되었고, 아펜젤러가 수정, 번역한 것은 3번과 4번이다.⁵⁾ 1) 『新約聖書馬可傳』(橫濱, 福音印刷合資會社, 明治十七年 1884), 米國聖書會社 발행, 한문에 토를 단 현토(懸吐) 한문본. 2)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橫濱, 福音印刷合資會社, 明治十八年 1885), 米國聖書會社 발행, 87면, 국한문 혼용본. 3) 『마가의전혼복음서언해』(橫濱, 福音印刷合資會社, 明治二十年 1887), 蘇格蘭聖書會社 발행, 한글판. 4) 『마가의전혼복음서언해』(한성, 한미화활판소, 1893), 미국성서공회(이후 ABS) 간행 순 한글판 등이다. 첫 세 판본은 요코하마 복음인쇄합자회사에서 출간했고, 마지막 판본은 서울 배재학당 내 한미화활판소(韓美華活版所 Trilingual Press, 1889년 설립)에서 인쇄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루미스 총무로부터 이수정본 마가복음 수십 권을 받아 집에 넣고 4월 5일 인천항에 상륙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이 복음서 몇 부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손에 들고 제물포항에 내렸다.”⁶⁾는 말

4) H. G. Appenzeller, “Notebooks, Item 1885”, Henry G. Appenzeller Papers, Mission Research Library, Union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5) 옥성득, “1887년 개정판 『마가의전혼복음서언해』 고찰”, 『성경원문연구』 38 (2016), 119-137; 참고,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53-157.

6) W. D. Reynolds,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Korea Review* (May 1906), 171;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67.

은 사실이 아니다. 성서는 해관에서 통제하는 품목이었으므로, 가방이나 손에 들고 들어오는 것은 어려웠다. 첫 선교사들이 국외에서 번역 및 출판된 복음서를 가지고 입국한 것은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이미 로스본 복음서들이 국내에 상당수 반포되었고, 이수정본 마가복음은 부산에서 일부 반포된 상태였다. 스크랜턴 의사도 5월 6일 서울에 들어올 때 루미스가 준 이수정본 마가복음 한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아펜젤러의 짐이 7월 말이 지나 서울에 도착했으므로, 그보다 앞서는 마가복음의 서울 반입이었다. 루미스는 스크랜턴에게 세관에서 통관되지 않으면 버려도 좋다고 말했는데, 사실 루미스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도 같은 양을 주고 그런 말을 했는데, 모두 통관되었다.⁷⁾

아펜젤러의 첫째 어학교사는 이정민이었다. 그는 1886년 7월 초에 보수가 많은 다른 자리로 옮겼다. 이어서 권서로 일하게 되는 최성균, 배재학당 학생 한용경, 본처전도인이 되는 최병헌과 심노겸이 어학교사나 번역조사로 도왔다.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한국어를 익히면서, 루미스 목사가 서울을 방문한 1885년 10월부터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1:1 “神의子耶蘇基督의福音이니그처음이라 신의자예수쓰크리슈도쓰의복음이니그처음이라”를 본 한국인은 ‘신의 아들’을 ‘귀신의 아들’로 오해하므로, 두 선교사는 수정본 출간을 주장했다.⁹⁾ 루미스는 이를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두 선교사의 성급한 판단으로 간주했다.¹⁰⁾

대개 한 지역에 파송된 첫 선교사들은 언어를 배우면서 복음서를 번역하는데, 한글 복음서의 경우 이미 만주와 일본에서 출간되어 반포되고 있었으므로, 서울의 선교사들—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헤론, 알렌—은 이들을 수정하고 새로 번역하기 위해 1887년 2월 7일 조선어성서번역위원회(Committee for Translating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를 구성했다. 이날 결정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위원장에 언더우드, 서기에 아펜젤러를 선출했다. 둘째, 휴양하러 일본에 가는 언더우드는 번역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셋째, 아펜젤러는 로스에게 편지하여 서울로 초청하고 번역에 협조를 구한다.¹¹⁾ 이로써 일본과 만주에서 이루어진 기존 번

7) W. B. Scranton,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 Mission of M. E. Church”, *Korean Repository* (July 1898), 257.

8)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187-189.

9) H. G. Appenzeller's letter to Dr. E. W. Gilman, 1887. 8. 9.

10) H. Loomis's letter to E. W. Gilman, 1886. 5. 14. “언더우드를 제외한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는 한국인 번역자와 함께 이수정 번역을 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1) Committee for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 “Minutes”, February 7,

역 사업을 계승하되, 서울의 성서위원회가 주도권을 잡고 한글 성서 번역 사업을 진행했다.

이수정 역본 마가복음의 최종 개정 작업은 아펜젤러가 맡았다.¹²⁾ 수정은 1887년 2월 초에 거의 마무리되었다. 1887년 2월 언더우드는 요코하마에 갈 때 인쇄하기 위해 수정한 마가복음 원고를 들고 갔다. 그는 헵번 의사의 충고대로 일본 성서위원회가 채택한 세 공회 연합 방식을 따라, 루미스에게 마가복음 수정본을 세 공회 연합본으로 출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루미스는 이수정본이 미국성서공회(ABS)의 출판물이므로 그 수정본도 배타적으로 출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더우드는 어쩔 수 없이 출판을 지원한 스코틀랜드성서공회(NBSS) 톰슨 총무의 후원을 받아 조판에 착수했다. 언더우드의 협조 요청을 받은 영국성서공회(BFBS) 중국지부 총무들(마카오의 켄뮤어와 천진의 브라이언트)도 이미 로스본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 역본을 지원할 뜻이 없었다. ABS는 언더우드-아펜젤러 역본을 ‘경쟁본’으로 보았고, BFBS는 ‘제3의 역본’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거절했다. 두 공회는 마가복음 수정본을 기존 역본을 무시하는 성급한 작업으로 보았다. 1887년 성서위원회의 첫 작품인 『마가의전훈복음서언히』는 NBSS의 후원으로 8월 말경 요코하마 후쿠인(福音)인쇄합자회사에서 2,000부가 출간되었다. 복음인쇄소는 ABS가 출판하는 일본어와 한국어 성경을 인쇄하고, 점차 중국, 필리핀, 태국의 성경까지 인쇄하면서 발전했다.¹³⁾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개정한 1887년 판 『마가의전훈복음서언히』는 한글 성경 번역사와 출판사에서 다음 몇 가지 의의를 지녔다. 첫째, 번역에는 천주교 신자였다가 언더우드의 어학교사가 된 송순용과 아펜젤러의 어학교사였던 한용경 등이 조사로 참여했다. 송순용은 천주교가 한 세기 동안 축적한 한글 번역 전통을 개신교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둘째, 국내 번역 문체에서 구어(입말) 중심의 로스역과 달리 어원을 밝혀서 적는 문어(글말)의 전통과 국한문에서 온 한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전통이 1887년 판 마가복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셋째, 1887년 수정판은 신(神) 대신 상제(上帝)를 사용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로스본에서 채용한 하나님(하느님)을 수용하지 않았다. 넷째, 세 성서공회의 연합을 위한 논의가 1887년 마가복음 수정판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경쟁본이나 제3의 번역으로 성사되지 않았으나, 결국 조선성서위원회는 세 공회 연합을 추진했고, 1919년까지 한국 성서사업은 세 공회 연합 사업이 되었다. 한편 1893년

1887.

12) H. G. Appenzeller's Diary, 1887. 2. 8.;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198.

13) “The Printing of the Scriptures”, *Bible Society Record* (New York: May 1916), 109.

판 『마가의전혼복음서언히』(한성: 한미화활판소, 1893)는 1887년판에서 스크랜턴이 철자를 일부 수정하고 ABS가 제본비를 후원하여 발행했다.¹⁴⁾

2.2. 로스 역본 개정, 1889~1890년

로스본(예수성교본)은 만주의 심양 문광서원에서 발간된 1882년의 누가, 요한복음부터 1887년의 예수성교전서, 그리고 1893년까지 발간된 마태, 누가, 마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9종 이상의 다양한 단권 한글 성서와 최초의 신약전서를 지칭한다. 사실 로스본 단권 성경은 1893년에도 11,000부가 출판되었다.¹⁵⁾

이수정 역본의 개정본이 서울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발간되고, 한글 성경 번역의 주도권이 심양의 로스 팀에서 서울의 성서번역위원회로 넘어가기 시작하자, 1889년 BFBS는 위원회에 로스본 개정을 요청했다. 언더우드는 로스본의 번역 오류, 한문 투, 의주 사투리, 철자법 등을 문제 삼고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그 개정에 반대하고 새 번역을 주장했다. 로스는 의주 방언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서울 철자법이 아닌 점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철자법만 통일해서 바꾸면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어서 개정하면 된다고 보았다. BFBS의 브라이언트는 언더우드의 견해를 첫 번역본을 만들려는 젊은 선교사의 야망으로 간주하고 아직 번역할 만큼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루미스는 로스역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이런 로스본 개정 논쟁 중에 아펜젤러는 로스-브라이언트의 견해를 지지하고 철자법만 서울말에 맞추어 바꾸면 4~5년간 유용하다고 보았다. 스크랜턴, 헤론, 기퍼드도 아펜젤러를 지지했다. 그 결과 스크랜턴, 헤론, 올링거, 기퍼드, 하크니스로 로스역개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누가복음 수정을 아펜젤러에게 맡겼다. 그 결과 아펜젤러는 첫 복음서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수정하여 1890년 『누가복음전』을 한미화활판소에서 출판했다. 아펜젤러는 로마서도 수정하여 1890년 『보라달로마인서』를 출간했다. 이들은 로스역의 본문에서 철자법만 일부 바꾸었고, 어휘와 문장 구조에서 큰 변화가 없는 매우 보수적인 개정이었다.¹⁶⁾

14) H. Loomis's letter to E. W. Gilman, 1893. 3. 8; 옥성득, “1887년 개정판 『마가의전혼복음서언히』 고찰”, 『성경원문연구』 38 (2016), 119-139.

15)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66-76.

16) Ibid., 211-221. 자세한 분석은 유경민, “로스 번역본을 수정한 아펜젤러 『누가복음전』(1890)의 문법, 음운, 어휘 요소의 수정과 교체”, 『우리말연구』 36 (2014), 29-57을 참조하라.

2.3. 위원회 역본 번역, 1891~1902년

1890년 5월 20일 성서번역위원회는 루미스의 영향 속에 로스역 개정을 중단하고 새 번역을 시작하기로 했다. 번역자들의 한국어와 번역 실력이 향상되면서 개정 과정에서 철자법 외에도 용어, 오역, 문체, 표현 등에 문제를 느끼고 새 번역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을 맡은 스크랜턴이 건강을 잃어 1891년 2월 안식년을 떠나자, 그를 대신해 아펜젤러가 책임을 맡았고, 4월에는 언더우드와 건강이 나빠 안식년을 떠나고 게일이 그를 대신했다. 아펜젤러는 스크랜턴과 언더우드가 번역하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게일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번역했다. 그 결과 아펜젤러 역의 『마태복음전』이 1892년 1월에 개정위원회와 선교사 교재용으로 30부만 발간되었다. 그것은 로스 역본의 본문과 전혀 다른 새 번역으로, 서울 위원회 역본의 효시였다. “아펜젤러의 『마태복음전』은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국내 성경 번역에 그 원칙과 방향을 잡아주었다는 점에서 한글 성경의 또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¹⁷⁾

1893년 서울을 방문한 BFBS 만주지부 총무 켄뮤어의 제안대로, 성서사업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일본식으로 해 오던 번역 방법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새로 상임성서실행위원회(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를 조직하고, 이들이 성서번역자회(Board of Official Translators)를 임명하고 그들의 번역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게 했다. 실행위원회는 각 선교회가 파송한 2인 대표자로 구성했다. 북장로회는 언더우드와 게일, 북감리회는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성공회는 트롤로프를 개인 자격으로 보냈다. 1893년 11월 첫 상임위원회 모임에서 언더우드가 회장, 스크랜턴이 서기로 선출되었다. 1895년 남장로회는 레이놀즈를 파송했다. 이후 신약 번역은 한국인 조사들이 한문 위원회본을 저본으로 초역을 한 후, 번역자회 위원인 선교사가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개역본을 참고하여 개인역을 만들고, 번역자회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 본문을 확정하여 시험 역본을 만들었다. 이 시험 역본을 발간하여 3년간 반포한 후 공인 역본을 확정했다. 그 결과 1900년 서울 미이미교회회관판소에서 시험 역본 『신약전서』를 발간했다. 서울에서 발간한 첫 신약전서였다.

아펜젤러가 번역한 단권은 마태복음(1895), 마가복음(1895), 고린도전서(1898), 고린도후서(1898)로 출판되었으므로, 1900년 신약전서 안의 그 책들의 본문은 공인역본 본문으로 출판되었다.¹⁸⁾ 아펜젤러는 1897~1898년 「대

17)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232.

18) 언더우드는 누가복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한크리스도인회보」에서 마태복음 공과 본문을 연재했는데, 그 번역은 단권 마태복음에서 가져왔으며, 1900년 임시본 신약전서는 이 본문을 일부 개정했다. 마태복음 28:1-2을 예로 들면, 철자법 수정 외에 1절에서 “그우회”를 “돌우혜”로, 2절에서 “하느님의 스자ㅣ”를 “주의 던사가”로 수정했다. 이처럼 1895년, 1898년, 1900년 아펜젤러는 임시역 마태복음을 계속 수정해 나갔다.

마태복음 28:1-2 비교

1898년 회보: 안식일 잇튼날 식벽에 막달나에 마리와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랴고 왔더니 크게 디동흐며 하느님의 스자ㅣ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문에 돌을 굴니고 그우회 안젧는디¹⁹⁾

1900년 신약전서: 안식일 잇틀 날 새벽에 막달나 마리와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랴고 왔더니 크게 디동흐미 쥬의 던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문에 돌을 굴니고 그 돌 우혜 안젧는디

아펜젤러는 1898~1902년 번역자회 독회에서 데살로니가서 이후 계시록까지 임시본 본문을 공인본 본문으로 수정, 확정했다.

아펜젤러가 조사 조한규와 함께 1902년 6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번역자회 모임에 가다가 선박 사고로 함께 익사하면서, 신약 번역은 큰 암초를 만났다. 한글 신약전서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 교인을 위해, 상임실행위원회의 요청으로 남장로회는 전주의 레이놀즈를 서울에 거주하면서 번역에 전념하도록 했고, 북장로회는 언더우드와 게일에게 번역에 전념하도록 배려했다. 이 세 번역위원은 1902년 10월부터 1906년 3월까지 시험본과 공인본을 완성했다. 1906년 첫 공인본 신약전서(구역)가 발간되었다.

1893~1902년 가장 논쟁이 된 주제는 God의 한글 번역어로 던쥬냐 하느님이나의 용어 논쟁이었다. 북감리회는 세 파로 분리되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올링거는 상데 지지자였으나 두 자녀의 죽음으로 1893년 서울을 영구적으로 떠났다. 존스(G. H. Jones)는 올링거를 따라 1892~1893년에 출간한 『구약공부』 상권과 하권에 상대를 채택했다. 스크랜턴은 언더우드와 함께 던쥬 지지자였는데, 스크랜턴은 상데나 신 대신 던쥬를 채택해야 그 한글 용어인 하느님과 더불어 두 용어만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아펜젤러는 시종일관 하느님을 지지했다. 언더우드는 여러 용어를 실험하다

번역했고, 게일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을 번역했고, 스크랜턴은 로마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를, 레널즈가 데살로니가전후서를 번역했다. 계시록을 게일이 번역했다는 근거는 H. Loomis' letter to E. W. Gilman, 1899. 1. 18. 이다. 레이놀즈는 독회에 참여 임시본을 확정하는 데 기여했다.

19) “레빅일공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 3. 30.

가 1894년 턴주로 기울었다.

1894년 상임성서실행위원회는 턴주와 하느님을 놓고 표결했다. 결과는 4:1로 턴주를 지지하는 자가 많았는데, 하느님을 지지하는 자는 아펜젤러 혼자였다.²⁰⁾ 영국교회(성공회)도 턴주를 지지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와 달리 일반 선교사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하느님을 선호했다. 천주교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강했기 때문이다. 1894년 가을 상임위원회는 잠정 타협책으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출간하면서, 각각 1,000부는 하느님 판본으로, 500부는 턴주 판본으로 인쇄했다.

이후 1904년까지 하느님판과 턴주판이 공존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성공회 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하느님판을 매입하고, 선교사들도 언더우드를 제외하고 모두 하느님판으로 기울었다. 1904년 전후 하느님으로 고정된 배경에는 1897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에서 한국인 편집인들(최병헌, 노병선, 송기용 등)이 논설을 통해 고대 중국인이 섬긴 상제와 한국의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제시했으며, 1896년부터 독립신문이 일관되게 일반명사(용어)로서 하느님을 사용하고 지지한 사실이 있었다. 그 신학적 이유는 게일의 어원적 유일신론 주장(하느 = 하늘 + 한 + 하나로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한 크신 분)과 헐버트의 단군신화의 삼위일체적 재해석(환인 하느님, 성령 환웅, 동정녀 웅녀, 神人 단군)에 이어 마침내 언더우드가 한국 고대 건국 신화에 나타난 유일신으로서 하느님을 수용하면서 기독교화된 새 용어(neologism) 하느님을 창출했기 때문이었다. 아펜젤러는 일관되게 하느님을 지지했고, 그의 입장이 결국 정착되었다.²¹⁾ 위원회 본 번역 기간에 아펜젤러와 관련된 다른 두 쟁점은 비평 본문의 사용 여부와 구약 번역의 시작이었다. 이 두 주제는 다른 논문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두 장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자.

3. 비평 본문과 아펜젤러, 1896~1902년

3.1. 존 로스의 비평 본문 수용

로스가 번역, 출판한 1882년의 『예수성교요안네통음』은 웨스트코트 호트

20) 아펜젤러는 성경에서는 물론 『구세진주』(1895), 『턴로지귀』(1895), 『묘축문답』(1895) 등에서 하느님을 사용했다. 그것은 로스의 노선이었다.

21) 유일신 새 용어 하느님의 창출 과정은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137-185를 참고하라.

(Westcott and Hort)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 본문을 기초로 한 옥스퍼드판 그리스어 신약전서를 저본으로 번역한 영어 신약 개역본(The Revised Version, 1881)을 반영했다. 로스는 제8장 간음한 여인 사건 관련 구절을 후대에 삽입한 본문으로 보고 1882년 봄 요한복음 번역에서 생략했다. 다만 번역 출판 자금을 지원해 준 영국성서공회의 요청으로 이듬해에 그 본문을 넣었다.

로스본이 비평 본문을 저본으로 했다는 사실은 유명한 삼위일체 관련 본문인 요한일서 5장 7-8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²²⁾ 요한일서 5장 부분의 흠정역본, 문리본, 영어 개역본, 로스본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요한일서 5:7-8 비교

KJV(1616)	<u>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u>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문리본(1854)	在天作證者三, 父也, 道也, 聖神也, 此三而一者也. 在地作證者三, 神也, 水也, 血也. 此三者亦歸於一也.
RV(1881)	And it is the Spirit that beareth witness, because the Spirit is the truth. For there are three who bear witness,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로스본(1887)	령이간증함문곳이진리되미니세가지간증함매령과물과피니이세가지는화하여하나이되미
구역 임시본(1900)	증거함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실함시니라 증거함는 거시 세시 잇스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세시 또 함함야 하나히 되신 거시라

흠정역의 수용 본문은 밑줄 친 부분을 추가했다. 한문 문리본(Delegates' Version, 1854)은 흠정역을 그대로 따랐다. 수용 본문은 8절의 영, 물, 피에

22) 1690년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3-1727)은 논문("An Historical Account of Two Notable Corruptions of Scripture")에서 이 두 구절을 다루었다. 당시 이 구절들은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본문이었으므로, 뉴턴은 성공회와 충돌을 피하려고 논문을 출판하지는 않았다(그의 사후 1754년에 발간되었다). 이 논문에서 뉴턴은 두 구절을 성경 본문 타락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했다. 초기 그리스어 원문을 중세 시대 교황주의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강화하고 이단을 차단하려고 의도적으로 수정했는데, 뉴턴은 이를 '로마 교회의 경건한 사기'(pious frauds of the Roman Church)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상응하도록 7절에 성부, 말씀, 성신으로 세 개의 짝을 만들고, 8절에 ‘땅에서’를 추가하고 7절에는 ‘하늘에서’를 추가하여 하늘과 땅에서 삼위일체를 증거한다고 본문을 조작하고, 이를 라틴어 불가타 역본에 고정했다. 그러나 영어 개역본(RV)은 더 오래된 사본을 찾아서 밑줄 부분을 제거하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로 수정했으며, 로스본은 이를 따라 “령이간증함문곳이진리되미니”(영이 간증함은 이 곧 진리 됨이니)로 번역했다. 구역본(1900, 1906)을 비롯해 이후 한글 성서는 모두 영어 개역본과 로스본처럼 비평 본문을 따랐다. 8절의 물은 세례, 피는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며, 성령과 더불어, 예수의 사역의 시작인 세례와 마지막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 하나님이 예수의 신성을 증언한다는 뜻이다. 굳이 수용 본문처럼 조작하지 않고 오래된 사본대로 이해해도 삼위일체의 의미가 드러난다.²³⁾ 앞에서 보았듯이 구역본의 요한일서는 언더우드가 번역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번역위원과 실행위원은 모두 흠정역의 본문을 거부하고, 1881년 그리스어와 영어 비평 본문을 받아들였다.

3.2. 비평 본문의 소개자 아펜젤러

1896년 아펜젤러는 신약을 번역하면서 비평 본문을 이용했다. 그는 안식년 휴가 때인 1896년 1월 말 로저스 박사(Dr. Rogers)가 추천한 다음 책 1888년 판(초판은 1880년 출판)을 주문, 한국에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 여러 편집자들(T. K. Cheyney, S. R. Driver, R. L. Clarke, Alfred Goodwin, and W. Sanday)이 만든 *The Variorum Bible: The Authorized Version edited with Various Renderings and Readings from the Best Authorities* (New York: E. & J. B. Young & Co., 1888)이었다. 이 바리오룸 관주성경은 구약 본문은 흠정역으로 하되, 신약은 흠정역에 비평적 읽기를 달았다. 장마다 주제를 요약하고, 본문 옆에 관주를 넣고, 난하주를 더해서 비평 본문이 들어간 다른 읽기를 제시했다. 요한일서 5:7-8을 보면 흠정역 본문에 β 부분은 매우 후대의 사본 두 개에 등장하며, 모든 15세기 이전 그리스어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고, 5세기 아프리카 교부들의 글에 처음 발견되며, 라틴어 불가타 역본에서 고정시켰다고 설명했다.

23) 옥성득, “로스본을 비평 본문에서 번역하다(1882~1887년)”, 『좋은 나무』, 2022. 7. 11.

<표 2> *The Variorum Bible*(1881, 1888) 요한일서 5:7-8

beareth witness, because the Spirit is truth. 7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⁴ re- cord ^β in heaven, the Father, ^ι the Word, and the Holy Ghost: ^μ and these three are one. 8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β ,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α agree in one.	After Anno DOMINI 90. — ι John 1. 1. Rev. 19. 13. μ John 10. 30.
VAR. READ.—Vs. 7, 8. β So two very late MSS.; omit, & A B, and all Greek MSS. written before the fifteenth century, Edd. R; the passage is first found in African Fathers of the fifth century (but is possibly also quoted by Cyprian) and in later copies of the Vulgate.—V. 9. β for the witness of God is this.	

아펜젤러의 입장은 번역자회의 입장이었다. 1897년 성서번역자회 서기 스크랜턴 목사는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 총무 켄뮤어에게 “번역에 필요한 참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비평 서적 목록”(List of critical books)을 제출했다.²⁴⁾ 그 목록에는 1860년대에 초판이 간행된 수용 본문(Textus Receptus)에 기초한 카일 텔리취 구약 주석이 들어있었지만, 알포드 그리스어 신약전서, 옥스퍼드 그리스어 신약전서는 비평 본문을 반영하고 있었고, 70인역 비평본 3권도 있어, 번역자회는 1880년대 초기 성서비평학을 수용하고 있었다.

스크랜턴이 요청한 대로 영국성서공회가 모든 책의 전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번역자들이 1906년 『신약전서』 공인본을 출판할 때까지, 그리고 1910년 구약전서의 번역을 완성하고, 1911년 첫 『성경전서』를 낼 때까지 여러 주석, 사전을 참고하면서 번역했다. 아펜젤러가 성서번역자회 위원으로 1902년까지 일하고 별세했고, 스크랜턴도 그 위원으로 1900년 임시본 신약전서 번역에 참여했으므로, 그것을 약간만 수정한 1906년의 첫 공인본 신약전서는 성서 본문 비평을 어느 정도 반영한 번역본이었다.

피터즈의 『시편촬요』(1898)는 히브리어 원문에서,²⁵⁾ 언더우드의 『시편』(1906)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창세기』(1906)는 한문 문리본과 히브리어 본문을 저본으로 하고, 바리오름 성경에 나온 비평 본문을 소극적으로

24)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97.

25) Alex. A. Pieters, “First Translations”, *Korea Mission Field* 34:5 (May 1938), 91-93.

반영한 번역이었다.²⁶⁾

3.3. 아펜젤러 이후의 비평 본문 수용

한글 구약 번역에서 저본(대본)과 비평 본문 문제는 이 논문의 한계를 넘어서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자. 아펜젤러와 관련된 이 주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민영진은 개역 성경(1938)까지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영어본과 한문본을 대본으로 번역했고, 본문 비평에 관한 관심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하지만,²⁷⁾ 이는 지나친 해석이었다. 사실 언더우드는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일반 사역이 불가능할 때 시편 대부분을 “한문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전혀 아니라, 비평적 도움을 받으면서 최대한 원문에서 번역했다.”²⁸⁾ 김중은의 주장대로 피터즈의 『시편촬요』(1898)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했다.²⁹⁾ 그러나 피터즈는 성서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비평 본문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구약본 『구약전서』(1911)의 저본은 1903년에 발간된 긴즈버그(Christian D. Ginsburg)의 줄인 히브리서 본문 *The Text of the Hebrew Bible in Abbreviations*이었다.³⁰⁾ 히브리어 성경 원고본(Facsimiles of Manuscripts of the Hebrew Bible)은 1897~1898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줄인 단권본을 1903년 이후 구약 번역자회와 레이놀즈가 이용했을 것이다. 창세기는 아펜젤러가 34장까지 초역하고, 이후는 언더우드가 초역했다. 시편은 언더우드가

26) 1906년의 시편에 대해 밀러(閔休, H. Miller)는 뒷날 “우리는 피터스 씨가 시편 번역을 출판한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 그러나 피터스 씨가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언더우드 박사는 대부분의 시편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한문 번역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비평 작업의 도움을 받으며 원문으로부터 번역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민휴(閔休, H. Miller), “조선어성경의 유래”, 류형기 편, 『단권성서주석』(경성: 신생사, 1934), 53-58. 즉 언더우드는 비평 본문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문본을 저본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7)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7 (2010), 5-38. 민영진은 1938년 개역본까지 구약 본문은 히브리어 맞소라 텍스트(MT)에서 직접 번역한 경우는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영어본과 문리본에서 번역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1906년 창세기를 분석한 후 “창세기 번역자들에게 본문비평에 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한 세기 전에 본문비평은 아직 생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창세기가 히브리어 본문에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본문 비평은 일부 반영되었다.

28) H. G. Underwood's letter to A. J. Brown, 1905. 11. 15.

29) 김중은, “구약(舊約) 국역사(國譯史)에서 Alex. A. Pieters의 위치와 의의”, 『구약논단』 27 (2008), 159-182.

30)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를 참고하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1900년 2월까지 초역하고, 1906년 단권으로 출판했으며, 이어서 1906년 단권 창세기를 출간했다. 언더우드의 시편과 창세기 본문이 거의 그대로 1911년 구약전서에 들어갔다. 잠언과 예레미야는 게일이 번역했고 언더우드가 교열했으며, 말라기는 홀(E. F. Hall)이 초역했다. 번역자회는 이 초고를 놓고 검토하는 독회를 거쳐 최종 원고를 만들었다. 창세기와 시편 외에 나머지는 레이놀즈, 김정삼, 이승두 전주 번역팀이 번역자회 본문으로 완성했다. 레위기는 1909년 5월에 번역되었다. 레위기의 용어는 카일 텔리취 주석(영어본)도 참고하면서 번역했다.

개역(1938)의 경우에는 12개의 저본을 이용했고, 긴즈버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했다.³¹⁾ 개역을 완성한 피터즈와 레이놀즈, 그 이전 베어드(W. M. Baird)³²⁾ 등은 히브리어 원문을 놓고 씨름하며 한 단어, 한 어구를 정했다. 피터즈는 1925년 9월부터 구약 개역위원회에 임명되어 한 해 동안 민수기, 사사기, 룯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개정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으로 번역을 검토했다.³³⁾

따라서 구역본이나 개역본 모두 그리스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문이 저본이었으며, 비평본문도 구역본(신약 1906, 구약 1911)부터 반영했다고 하겠다. 아펜젤러의 경우 1902년에 별세한 관계로 신약 번역에 크게 공헌했지만, 역시 비평본문을 앞장서서 소개하고 반영하려고 했다. 다만 다음 장에서 보듯이 1897년 구약 번역에서는 비평본문을 반영하지 않았다.

4. 구약 번역과 아펜젤러, 1897~1898년

흔히 구약 성경 한글 번역의 효시를 피터즈로 보지만³⁴⁾ 사실은 존스, 언

31) Alex. A.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Korea Mission Field* (May 1940), 78. 12개 저본은 "독일어 루터 역본과 개역본, 러시아어 정통 역본과 개역본, 영어 흙정역본, 개역본, Moffat 역본, Goodspeed 역본, Ginsburg 영어 역본, 두 개의 한문본, 하나의 일본어 역본이었고, 여러 정통적이고 자유적인 주석들과 두 개의 히브리어 사전을 참고했다." 한 어구가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고 사전도 다를 경우 위원회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에스겔 20:39의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는 한 번역자가 여호와께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서 몇 시간 토론 후에 투표로 결정했다.

32) 베어드는 구약 번역을 위해 안식년 기간에 뉴욕에서 유대인 랍비에게 히브리어를 배우기도 했다.

33) Alex. A. Pieters, "Annual Report of Alex. A. Pieters for the year 1925~26", Pieters Papers,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Philadelphia, PA, USA.

34) 김중은, "최초의 구약 국역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즈", 『교회와 신학』 XIII (1981), 29-42; 박준서, 『최초의 한국어 구약성경 번역자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 (서울: 대한기독교

더우드, 스크랜턴, 아펜젤러가 효시였다. 피터즈는 성서위원회의 요청으로 1897년 7월 1일부터 시편 번역에 들어가 10월까지 저주 시편을 제외하고 예배 때 낭독하거나 교독(交讀) 하기에 적합한 56편을 번역했고, 이듬해 6편을 추가하여 시편 150편 가운데 62편을 발췌 번역하여 『시편촬요』를 1898년 5월 미이미교회출판소에서 출판했다. 단행본으로서는 첫 구약 번역서였고, 개인 사역본이었다.³⁵⁾

4.1. 구약 번역의 효시는 존스의 『구약공부』(1892~1893)

피터즈 이전에 다른 선교사들이 먼저 구약을 번역했으며, 그 일부를 소책자 형태로 간행하거나 신문에 연재, 출판했다.

첫째, 1892~1893년 구약의 여러 책의 본문을 발췌하고 한글 번역문을 실은 소책자인 『구약공부』를 배재학당의 교장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 목사가 번역하여 출판했다.³⁶⁾ 한글 구약 번역의 효시요, 발췌 구약 성경 번역문의 효시로, 『시편촬요』보다 5~6년 앞서 책으로 출판되었다. 1892년에 발간된 그 상권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으로 1~26과를 실었고,³⁷⁾ 1893년에 출간된 하권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까지 발췌, 번역했는데, 27~39과를 수록했다. 공과 공부용이었으므로 책마다 총론을 싣고, 각과는 1) 제목, 2) 본문 4면 정도, 3) 질문 1면 정도, 4) 주석 약 2면을 넣어서 본문의 이해를 도왔다. 책 첫 부분에 “인지명 목록”을 실었는데, 이는 로스본에서 1882년 누가복음에서 채택했던 강명편(講名篇)의 전통을 잇는 목록이었다. 그만큼 구약의 인명과 지명이 생소했기 때문이었다. 아브람(亞伯拉罕, Abrahm), 이삭(以色列, Israel), 마서(摩西, Moses), 살모이

서회, 2021).

35) 요코하마의 미국성서공회 일본지부 총무 루미스는 피터즈가 미국성서공회 권서 재직 중에 번역한 점, 미국성서공회의 공인을 거쳐 미국성서공회 역본으로 출판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했다. 이에 피터즈는 1898년 6월 미국성서공회 권서에서 사임하고 영국성서공회 조선지부로 자리를 옮겨 부총무직을 맡았다(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Ⅱ』 97).

36) 인천의 존스는 1892년 벵겔(Margaret Bengel)과 결혼하고, 통신 과정으로 테네시주 해리맨의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았다. 1892~1893년 아펜젤러가 안식년 휴가를 떠나자 서울로 와서 배재학당 교장직을 맡았고, 1893년 8월 연회에서 다시 인천으로 파송받았다. 구약공부는 존스가 서울에 근무할 때 만들었다. 1893년 존스는 로스역을 비판했고, 1895년 아펜젤러의 마태복음을 호평했다. 1895년 아펜젤러를 도와 *Korean Repository*를 창간하고 편집했다. 1900년에는 신약번역학회 회원이 되어, 아펜젤러 사후에 레이놀즈, 언더우드, 게일과 함께 신약을 번역했다. 그러나 제물포와 강화 지역의 사역이 증가하자 1905년 번역위원에서 사임하였다.

37) 현재 국내에 상권을 보유한 도서관이 없어, 상권의 서문이나 창세기 등의 번역문을 볼 수 없다.

귀(撒母耳記, Samuel), 가리아(珂利亞, Goliath) 등의 예에서 보듯이 인명과 지명 표기는 거의 한문 문리본을 따라 한글로 음역을 했다. 스크랜턴을 따라 상대를 채택했으며, 상대 앞에 한 칸을 띄우는 대두법을 사용했다. 다만 야화화(耶和華, Jehovah) 대신 여호와로 표기했다.

<표 3> 『구약공부』 하(1893)에 실린 구약 본문

27과 수 6:1-21	28과 수 24:1-30	29과 삿 7:1-23
30과 룖 1장	31과 삼상 3장	32과 삼상 7장
33과 삼상 8장	34과 삼상 10:17-27	35과 삼상 12장
36과 삼상 16장	37과 삼상 17장	38과 삼상 19장
39과 삼상 31장		

둘째, 1894년 청일전쟁으로 선교 사역이 중단되었을 때 언더우드도 시편을 번역했다. 이 번역은 출간되지 않았지만, 1906년 그의 번역으로 나온 『시편』으로 연결된다.

셋째, 1894~1895년 스크랜턴이 북감리교회 주일 성경공부를 위해 신약에서 1,080절을, 구약에서 창세기 열한 장, 출애굽기 여섯 장, 시편 네 편 등을 번역했다.³⁸⁾ 이 번역문은 아마도 등사본으로 인쇄하여 감리교회 주일 공과로 사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등사본 초역 단계의 구약 번역은 스크랜턴이 시작했다. 존스의 책 구약공부 두 권과 스크랜턴의 이 등사본 번역문이 있었기에, 감리교회는 예배 시간에 구약을 낭독할 수 있었다.³⁹⁾

넷째, 1897년 2월 초에 켄뮤어 총무는 “번역위원 한 명에게 창세기 1장 번역을 맡겼는데 아직 5절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했다.⁴⁰⁾ 이 번역위원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자료는 없지만, 정황상 아펜젤러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 그친 개인 번역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

4.2. 아펜젤러의 「조선크리스도인회보」 공과 구약 번역, 1897~1898년

다섯째, 1897년 건양(建陽) 2년(1897) 2월 2일 창간된 한국 교회의 첫 신문(주간지)인 「조선크리스도인회보」(이후 「회보」)에 공과 공부를 위한 사

38)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the USA* [hereafter *ARMEC*] (New York: MEC, 1895), 247.

39) 참고, “레빅레식”,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 1. 12.에 실린 예배 순서에 “구약 몇 구절을 읽음”이 나오고, 그 설명에 “만일 시편을 읽거든 함께 화답함이 가함”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시편촬요』(1898) 이전에 존스의 책과 스크랜턴의 등사본 번역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40) A. Kenmure's letter to W. Wright, 1897. 2. 6.

무엘상 번역 본문이 실리기 시작했다.⁴¹⁾ 4면의 주간지에서 1면은 사설, 2-3면은 공과 공부, 4면은 교회 소식을 실었으므로, 공과 공부의 비중이 컸다. 1897년 2~3월 「회보」에 실린 사무엘상 본문의 번역자는 다음 세 명 중 한 명이다. 1) 존스. 1893년 『구약공부』 하권에 실었던 사무엘상 네 장의 본문을 수정하고 추가로 많은 장을 번역하여 「회보」 공과에 실을 때 “묻는 말”을 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 스크랜턴. 1895~1896년에 감리교회 공과를 번역한 스크랜턴이 추가로 사무엘상을 번역했을 수도 있다. 3) 1897년 「회보」를 창간한 편집장 아펜젤러. 「회보」의 사설과 공과 본문과 교회 소식에서 그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아펜젤러가 번역했다는 1차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으나, 아펜젤러가 최종 번역자였다는 가설의 가능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스크랜턴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1897년 1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번역자회(Board of Translators) 독회로 매일 3시간씩 모여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본문을 확정했다.⁴²⁾ 그런데 「회보」의 구약 본문 번역자는 스크랜턴은 아니었다. 그는 1895년 창세기 열한 장, 출애굽기 여섯 장, 시편 네 편을 번역했다. 다음 해에는 그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897년 5월 1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그 시간을 이용해 미이미교회 예문(Ritual)을 개정하고 장정(Discipline)과 혼인과 세례 증명서의 일부를 새로 번역했다.” 그는 “야고보서의 개인역을 개정했는데, 실행위원회가 출판했다.”⁴³⁾ 번역은 그것이 전부였다. 감리사 스크랜턴은 시병원의 일을 하면서 1893년부터 남대문 상동교회와 동대문 불드원채플을 맡아 목회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봄에는 버스티드(John B. Busteed) 의사가 건강을 잃고 여름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므로 병원 일도 늘었다. 1893년부터 스크랜턴 목사가 맡은 상동교회는 4년 만인 1897년 봄에 교인이 250명으로 증가해 새 예배당이 필요할 정도였다.⁴⁴⁾ 따라서 스크랜턴이 번역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존스가 회보의 본문을 번역했을 가능성도 적다. 그는 1896년 1월 안식년 휴가를 떠나 상하이와 런던을 거쳐 10월에는 오하이주 포메로이에 있는 처가를 방문하고, 12월에는 뉴욕주의 고향 우티카(Utica)를 방문하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⁴⁵⁾ 존스는 16개월간의 긴 안식년을 보내고 1897년 5월

41) 이 번역문에 대해서는 민영진, “「조션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30:12 (1986. 12): 108-118을 참고하라.

42) W. B. Scranton's letter to H. Loomis, 1887. 10. 8.

43) ARMEC, 1897, 238.

44) 1893년 정동교회와 동대문불드원채플로부터 교인 10명을 넘겨받아 병원 건물에서 시작한 상동교회는 1897년 봄 교인이 250명으로 늘었다(W. B. Scranton's letter to Dr. Leonard, 1897. 5. 20).

45) G. H. Jones's letter to Dr. A. B. Leonard, 1896. 10. 28; G. H. Jones's letter to N. T. Smith,

에 제물포에 돌아와,⁴⁶⁾ 부흥하는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1897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연재한 「회보」의 사무엘상 상하와 열왕기상 본문을 존스가 번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만일 그가 1896년 초 휴가를 가기 전에 미리 기존 사무엘상 본문을 개정하고 열왕기상까지 여러 장을 추가 번역한 후 「회보」를 창간하려는 아펜젤러에게 번역문과 질문 원고를 주고 떠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듯이 「회보」의 첫 6개월간 실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을 번역하려면 6개월가량 걸리므로, 최소한 창간 1년 반이나 2년 전인 1895년 초부터 6개월 정도 「회보」의 공과 공부를 위해 번역했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선교 현장에서 잡지 창간을 바라보며 미리 2년 전이나 1년 반 전에 자비로 시간을 들여 개인 번역을 시작했을 가능성은 적다. 대신 아펜젤러의 부탁을 받아 사무엘상하의 16개 장과 열왕기상의 5개 장에 대한 질문지는 안식년 휴가를 가기 전에 한두 달 작업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추론은 아래 3절 사무엘상 10장 분석을 통해 강화될 것이다.

반면 아펜젤러는 1895년 안식년에서 돌아온 후, 1897년 1월과 2월에는 배재학당을 병커(D. A. Bunker)에게 맡기고, 선교회 회계 일을 하면서, 성경 번역과 「회보」 편집과 *Korean Repository* 편집 등 문서 사역에 몰두했다.⁴⁷⁾ 「회보」 내용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발행되었다.⁴⁸⁾ 미이미활판소(Trilingual Press)도 병커가 맡다가, 새로 부임한 콕(G. C. Cobb)이 소장으로 전담했다. 따라서 「회보」에 실린 구약 본문은 아펜젤러가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한다.⁴⁹⁾ 존스가 1893년에 번역해 놓은 사무엘상의 네 장은 참고하여 번역했을 것이다. 이때 그의 성경 번역조사는 조한규였으므로, 조한규의 도움을 받아 아펜젤러가 최종 번역문을 「회보」에 실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회보」의 사무엘 상하 번역은 아펜젤러 역이다. 「회보」의 조사는 최병헌과 송기용으로 논설과 다른 글의 편집을 도왔다.⁵⁰⁾

1896. 12. 7.

46) “제물포 교회론”,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2.

47) *ARMEC*, 1897, 245.

48) 1897년 가을 배재학당의 학생 수가 120명으로 증가하자, 아펜젤러는 1897년 9월 스크랜턴 감리사에게 「회보」의 편집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표했으나, 대신할 선교사가 없어서 편집 일을 계속했다. H. G. Appenzeller's letter to W. B. Scranton, 1897. 9. 15., “아펜젤러와 번커의 서간 ①” 「동방학지」 52 (1986. 6), 310.

49) 1986년 민영진은 회보의 번역문의 번역자를 알 수 없다고 후일의 과제로 남겨놓았다(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116). 그는 당시 북감리회에서 번역할 수 있던 스크랜턴과 존스와 아펜젤러의 역사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저자를 추적하지 않았다.

50) “Report XIII—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Journal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이 「회보」는 창간호부터 “레비일 공과” 2면을 개설하고 성경 본문과 주석과 묻는 말을 실었다. 미국 주일학교협회(Sunday School Association)가 공과를 싣는 조건으로 「회보」의 발행비를 지원했기 때문이다.⁵¹⁾ 공과 공부의 형식은 책의 총론 후 각 공과는 제목, 본문, 주석, 질문을 실었는데, 1893년 존스의 『구약공부』와 비교하면 주석과 질문(묻는 말)의 순서를 바꾸었다. 1897~1898년 「회보」에 실린 본문은 다음과 <표 4>와 같다.

<표 4> 「조선(대한)크리스도인회보」에 실린 성서 번역 발췌문

1897년

2월 2일~3월 31일(공과 1~9): 사무엘상 10, 15, 16, 17, 20, 23, 24, 26, 31장

4월 7일(공과 10): 누가 24장(부활절)

4월 14일~5월 12일(공과 11~15): 사무엘하 2, 5, 6, 7, 9장

5월 19일(공과 16): 시편 32편(다윗 왕의 회개)

5월 26일~7월 14일(공과 17~20, 22~24): 사무엘하 15, 18, 열왕기 1, 3, 4, 5, 8장

6월 23일(공과 21): 잠언 23장 일부(금주)

7월 21일~12월 8일(공과 25~45): 마태 2~12장

12월 15일(공과 46): 누가 2장(성탄절)

12월 22일~29일(공과 47~48): 마태 13장

1898년

1월 5일~6월 8일(공과 49~71) 마태 14~28장

6월 12일~12월 28일(공과 72~100) 창세기 1~26장

공과를 사무엘서로부터 시작한 것은 이전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감리교회에서 주일 공과(성경공부)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대부분 장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일부만 번역했으며, 장을 연속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공과 공부하기에 좋은 장을 선택적으로 번역해서 실었다. 각 교회는 매주 화요일에 발행된 「회보」를 받아 주일학교 공부에 사용했다. 1897년에 구약 공과 공부는 2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게재했다. 각 번역에는 주석과 묻는 말을 달아 공과 공부에 도움을 주었다. 주석 부분은 이화학당의 교사 로스와일러(Louisa C. Rothweiler)가 썼고,⁵²⁾ 묻는 말은 존스(G. H. Jones) 목

the Korea Mission of the MEC (1898), 50.

51) Ibid.

52) 따라서 로스와일러가 존스에 이어 한국에서 구약 주석을 쓰고 발표한 첫 선교사 중 한 명이다. 그의 부친이 독일계 미국인 이민자요 구약학자로 디트로이트 볼드윈대학의 교수였는데, 루이자 로스와일러는 저먼왈레스대학을 졸업했다. 그녀는 성경 신학도 공부했으며, 한국에 오기 전 디트로이트 베레아 공립학교 교사였다. 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존스보다 로스와일러가 주석을 쓸 자격이 있었다.

사가 작성했다.⁵³⁾ 따라서 아펜젤러가 1893년 존스의 구약공부에 나오는 사무엘상 4개 장은 수정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새로 번역했다. 그 이유를 아래 본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4.3. 사무엘상 10장: 『구약공부』(1893)와 『회보』(1897)의 번역 비교

「조선크리스도인회보」(1897)에는 먼저 사무엘상 10, 15, 16, 17, 20, 23, 24, 26, 31장 등 아홉 장이 번역되어 실렸는데, 이 가운데 존스의 『구약공부』와 겹치는 부분은 10, 16, 17, 31장 등 네 장에 불과하다. 「회보」 창간호(1897.2.2.)에 실린 사무엘상 10장 17-27절 번역⁵⁴⁾을 존스의 『구약공부』(1893)와 『구약전서』(1911)의 같은 구절과 비교해 보자. 표에서 밑줄 친 부분은 마소라 본문(MT)과 다른 번역이다.

<표 5> 사무엘상 10:17-27 『구약공부』, 「회보」, 『구약전서』 번역 비교

절	『구약공부』(1893)	「회보」(1897)	『구약전서』(1911)
17	살모이빅성을불너미 스파에서 여호와께모 히고	사무엘이 미사파에서 야화화 압헤 빅성을 모 히고	삼무엘이 미스바로 여호 와 압헤 빅성을 불러 모 히고
18	이식렬즈손의게닐러 골으디 샹데여호와께 셔이긋치닐으샤디내 가이식렬을익급에서 나오게호고너희랄이 급사람의손에서구원 호고너희를몹시구는 모든나라의손에서구 원호되	무리의게 닐너갈으디 이스라엘 족속 하느님 야화화씨셔 골으샤디 네전에 내가 너희를 인 도호야 익급에 나오게 호고 익급사람과 밋 여 러나라의 학디호는이의 손에 너희를 버셔나게 호얏더니	이스라엘 즈손다려 닐으 디 이스라엘 하느님 여 호와씨셔 닐으시기를 내 가 이스라엘을 인도호야 애급에서 애급사람의 손 과 모든 나라의 너희를 압제호는 손에서 구원호 섯스되
19	오직너희가오늘너희 를친히모든환란과고 란에서나오게호신너 희 샹데를브리고쪼더 브러말호되우리우희	환난과 고초에 구원호 너희 하느님을 너희가 비척하고 인군 세우기 를 구호니 이제 너희가 맞당히 이곳에 니르러	너희 모든 환난과 간고 한 가운데서 구원호신 하느님을 너희가 오늘 슬혀브리고 말하기를 왕 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

53) “Report XIII—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Journal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C* (1898), 50.

54) “사울노 이스라엘 첫지 님군”,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2. 2.

절	『구약공부』(1893)	『회보』(1897)	『구약전서』(1911)
	왕을 <u>세우라</u> 하니이제 너희가맛당히너희지 파와너희모든천디 로다 여호와와압히 <u>되</u> <u>이라</u>	너의 지파를 <u>각각싸라</u> 야화화 압헤 <u>셔라</u> 고	게 <u>하라</u> 하니 너희 지파 의 인명수효대로 여호와 압헤 다 모으고 천명씩 세를 논하라
20	살모이이식렬모든지 파들을갓가이오게 여변아민의지파를 <u>붓</u> <u>들고</u>	사무엘이 <u>이스라엘</u> 지 파로 <u>여곰</u> 제비를 뽑 아 변야민 <u>족속</u> 을 엇고	삼우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갓가히 세운 후 에 벤야민의 지파를 제 비뽑고
21	또 <u>변아민</u> 의지파를모 든가솔리로갓가이오 게여마틀리의가솔 을붓들고그중에괴스 의아들소라를붓들되 오직차즐새에만나지 못흔지라	<u>변아민</u> 지파로 <u>여곰</u> 제비를 뽑아 마특리 <u>족</u> <u>속</u> 괴스의 아들 사울노 를 엇엇더니 차질수가 업는지라	또 벤야민 지파를 각각 그 <u>족속</u> 대로 세운 후에 맛으리의 <u>족속</u> 을 제비뽑 고 또 기스의 아들 사울 을 제비뽑으니 차차도 맛나지 못흔지라
22	그런고로우리가 여호 와의뜻조오디그사 람이아직아니로잇가 흔대 여호와와셔디 여곰아샤디보라물 건스이에숨엇느니라	<u>야화화</u> 의 엇즈와 글아 디 그사람이 이곳에 니 르오리잇가 <u>드답하야</u> 갈으샤디 <u>그사람이</u> 집 안 <u>세간속</u> 에 숨엇느 니라	이에 여호와 의 무르디 이리로 또 올 사람이 흔나이 앓습느잇가 여호와속셔 글아샤 되 집가온디 숨엇느 니라 하시니
23	우리가드라나숨은 디셔슬어오게하니 그사람이나라릭성 가온디셔니억기로 우희못릭성보담더 크더라	사람들이 쏘차 <u>붓드러</u> 빅성중에 세우니 <u>그신</u> <u>체가</u> <u>고대하야</u> 사 람들이 겨우 그 <u>억</u> <u>기에</u> <u>닷는</u> <u>지라</u>	사람이 달려가 거셔 다려오니 사울이 빅 성가온디 서매 그 키는 못사르보다 엇기 우나 더흔 지라
24	<u>살모이</u> 모든빅성 에게말하여글으 디너희가여호와 의턱호신바사 람이빅성중에 하나토긋흔 이가업숨을보 지못흔느냐 하니모든빅 성이소릭질 너글으디 왕은만세에 슈하쇼셔 하더라	사무엘이 <u>빅성</u> 에게 닐러글아디 너희 는 야화화의셔 빅한 사람을 보 <u>아라</u> <u>억조인</u> 민 중에 비홀자 업느니라 <u>빅성</u> 들이 환락하야 <u>부루지</u> <u>져</u> 글으디 우리왕은 천 세나 향슈하쇼셔	삼우엘이 여러 빅성 드려닐으디 너희 가 여호와 의 셔 빅한 사 람을 보느 냐 모든빅 성가온디 하나도 작할 이 가 업다 하니 빅성들이 소릭하야 글으 디 왕은 만세나 사옵쇼 셔 하 더라

절	『구약공부』(1893)	「회보」(1897)	『구약전서』(1911)
25	이에 살모이 나라 모양을 빅성에게 고하야 칙에 기록하고 여호와 압헤 두 나라 쏘 살모이가 모든 빅성을 각각 그 집으로 보내니라	사무엘이 나라 법대로 빅성을 <u>보이고</u> 칙에 써서 야화화 압헤 두고 빅성을 보내여 각각 <u>질</u> 에 도라 가게 하고	사무엘이 나라의 법도를 빅성의게 반포하고 칙에 기록하야 여호와 압헤 두고 모든 빅성을 각각 <u>죽</u> 집으로
26	<u>소라</u> 쏘 <u>하느님</u> 에 그 집으로 도라갈식 상대 계셔 밋음을 감동케 하신 <u>하느님</u> 무리를 더 불고 가니라	<u>사울</u> 노는 <u>기비아</u> 로 도라갈식 <u>하느님</u> 의 감화 받은 이는 만히 <u>썩</u> 라 가고	사울도 기브아 본집으로 도라가매 <u>하느님</u> 께서 그 밋음을 감동시키신 자더라 <u>하느님</u> 무리가 <u>썩</u> 라 가니라
27	오직 엇던 괴악한 자들이 <u>하느님</u> 이 사름이 엇지 능히 우리를 구원하리 오하고 소라를 업수이 녀역 레물을 드리지 아니하되 오직 <u>소라</u> 는 안덩히더라	<u>모든</u> 비류들은 <u>하느님</u> 이 사름이 엇지 우리를 구원하리요 하야 업수이 녀치고 레물을 드리지 아니하되 <u>사울</u> 노가 묵연히 엇더라	엇던 란류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엇더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레물을 드리지 아니하되 사울이 모르는 데 하더라

<표 5>에서 보듯이 『구약공부』와 「회보」의 두 본문은 단어나 구문에서 전혀 다른 번역이다. 만일 존스가 「회보」의 본문을 안식년 출발 전인 1895년에 번역했다면, 1893년 구약공부 발행 이후 2년 만에, 1) 용어 변경(상대→하느님), 2) 고유명사 표기 변경(여호와→야화화, 살모이→사무엘, 미스파→미사파, 이식열→이스라엘, 변아민→변야민, 소라→사울노 등), 3) 대두법 삭제, 4) 띄어쓰기 채용 등 혁신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5) 구문이 전혀 다르며, 직역 대신 의역이 들어간 번역이다. 「회보」역에서 필자가 밑줄을 친 부분은 마소라 본문과 어긋나는 번역이다. 과연 2년 만에 존스가 그런 변화를 수용하면서, 구문과 단어를 전혀 다르게, 일부 개약을 하면서, 수정하거나 새로 번역했을지 의문이다.

구역 『구약전서』와 비교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단어나 구문은 「회보」 번역(1897)보다 오히려 『구약공부』 번역(1893)이 더 구역(1911)에 가깝고, 마소라 본문에 충실한 번역이다. 민영진은 『구약공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회보 번역, 구역, 개역만을 비교

한 후 「회보」 번역이 마소라 본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주장했으나,⁵⁵⁾ 그가 논문에서 밝힌 대로 사무엘상 10:17-27에서 「회보」 번역은 마소라 본문의 160여 개 히브리어 낱말에서, 37개 삭제, 18개 첨가, 대응 불일치 7개 등 62개 단어(약 39%)의 불일치가 발생하여⁵⁶⁾ 마소라 본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었다. 반면 『구약공부』는 일부 불일치가 있으나 마소라 본문의 구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직역을 했다.

둘째, 『구약공부』의 번역자와 달리 「회보」의 번역자는 다음과 같은 오역이나 단어를 생략한 의역을 범하고 있다.

<표 6> 「회보」의 오역과 의역과 생략

- 17절: 미스바·로·를 미스바·에서·로 오역
- 18절: 히브리어 전치사 ‘min’(~로부터, ~에서)을 ‘~에’로 2회 오역
- 18절/20절: 자손을 ‘족속’으로, 혹은 지파를 ‘족속’으로 번역
- 18절/20절: ‘모든’을 생략하거나 ‘여러’로 번역
- 19절: 접미사 ‘kem’(너회의)을 생략
- 20절/21절: ‘~로 하여금’의 표현 사용
- 21절: ‘제비뽑고’를 1회 생략, 문장 연결사 ‘또’를 2회 생략
- 22절: 문장 연결사 ‘그런고로’를 생략, 주어 ‘여호와’ 1회 생략
- 23절: “그 신체가 고대하야”라고 의역, “엇기에 낫는지라”로 의역
- 24절: 의문형을 명령형으로 번역, ‘모든 백성’을 ‘억조인민’으로 번역
‘소리질러’를 ‘부루지저’로 번역
- 25절: 집·으로·를 집·에·로 오역, 백성·에게·를 백성·을·로 번역,
‘고하고’를 ‘뵈이고’로 번역
- 26절: ‘그집으로’ 생략, ‘흔 무리가’를 생략
- 27절: ‘어떤’을 ‘모든’으로 오역

이러한 오역과 생략을 볼 때 두 본문의 번역자는 달랐다. 결론적으로 『구약공부』와 「회보」의 본문은 전혀 다른 번역이며, 따라서 『구약공부』의 번역자(존스)와 「회보」의 번역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당시 감리회 선교사가운데 번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스크랜턴, 존스, 아펜젤러 세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회보」의 구약 본문 번역자는 편집자인 아펜젤러였다.

회보의 번역 저본은 1) 마소라 본문, 2) 앞장에서 다룬 영어 흠정역(KJV)

55) 민영진, “<改訳> 사무엘상·下の 原訳本: 『조선크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사무엘 상하의 MT 반영 정도 및 1, 2차 개정 본문과의 비교”, 『신학과 세계』 14 (1987), 5-42.

56) Ibid., 15-26.

본문 아래 비평이 반영된 다른 읽기가 들어간 *The Variorum Bible*(1881), 3) 영어 개역본(RV, 1885), 4) 한문 문리본(1858) 등이었다. 문리본을 따라 신명사문자(Tetragramm)를 야화화(耶和華)로 표기했다. 5) 1911년에 발행된 구역(舊譯) 『구약전서』의 대본이 된 긴스버그 히브리어 성경은 아직 발간 전이라 이용되지 않았다.

「회보」의 구약 번역은 종래 구약 최초의 한글 번역으로 생각해온 피터즈의 『시편촬요』보다 1년 앞선다.⁵⁷⁾ 특히 한글 성경 번역사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시도하고, 2단 내려쓰기로 인쇄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번역이었다. 아직 구약 번역이 공식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 등 기울어가는 조선 왕조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의 등극과 뒤이어 전개되는 이스라엘 왕조사를 다룸으로써 현실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회보의 구약 번역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4. 시편의 비교: 아펜젤러 역, 피터즈 역, 언더우드 역

그러면 회보역(아펜젤러의 번역)은 이후 나온 피터즈와 언더우드의 구약(시편) 번역과 얼마나 달랐으며, 이후 번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마침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5월 19일 자에 아펜젤러가 번역한 시편 32편이 있으므로, 1898년 피터즈의 『시편촬요』와 1906년 언더우드의 『시편』, 1911년 구역의 시편, 1938년 개역의 시편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보 역의 저본을 알기 위해서, 시편 32:1-5의 영어 흠정역(Variorum Bible, 1881; RV, 1885와 동일함), 한문 문리본(文理 委辦譯本 Delegates' Version, 1858), 아펜젤러역을 비교해 보자.

<표 7> 시편 32:1-5 비교, KJV, 문리본, 아펜젤러역

절	KJV(1881), RV(1885)	文理 委辦譯本 (1858)	「회보」 역(1897)
1	Blessed is he whose transgression is forgiven, whose sin is covered.	人得赦其過、而蓋其愆者、福兮、	사람이 자기의 죄과를 사하고 덮는 자 복이며
2	Blessed is the man unto whom the	人不為耶和華所	사람이 야화화의 득죄치

57)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94.

절	KJV(1881), RV(1885)	文理 委辦譯本 (1858)	「회보」 역(1897)
	LORD imputeth not iniquity, and in whose spirit there is no guile.	罪、其心無偽者、福兮、	아니 험야마음의 거짓거 시 업는 자ㅣ 복이로다
3	When I kept silence, my bones waxed old through my roaring all the day long.	我不言己罪、終日歎歎、筋骨漸衰、	내가 묵묵하고 종일토 록 탄식하기에 근골이 쇠험엿도다
4	For day and night thy hand was heavy upon me: my moisture is turned into the drought of summer. Selah.	爾朝夕譴我、精氣漸涸、有如夏日、嘆其乾兮、	야화와씩서 죠석으로 나를 칙망 험매 나의 정 기 모름이 여름날 쏘임 굿도다
5	I acknowledged my sin unto thee, and mine iniquity have I not hid.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unto the LORD; and thou forgavest the iniquity of my sin. Selah.	我自任厥過、不匿己非、禱耶和華、曰、我任罪於爾前、爾則赦宥兮、	내가 나ㅣ 죄를 알아 숨 기지 아니 하고 야화화 씩 빌어 굴으되 내가 조 복험노니 용서 험쇼서 험노라

<표 7>의 세 역본에서 단어와 문장 구성을 볼 때, 아펜젤러의 번역은 흠정역본(영어 개역본과 동일)의 번역이 아니라, 문리본의 직역에 가깝다. 사무엘상의 경우와 달리, 아직 다른 선교사들이 번역한 시편을 참고할 수 없었고, 한국인 전도사들과 지식인 교인들이 한문 문리본을 읽고 있는 현실에서, 주일학교 공과용 개인역으로 문리본을 번역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했을 것이다. 바리새교 성경의 난하 각주에 있는 다른 읽기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한문본에서 1절과 2절을 “人”으로 시작하는 번역본은 문리본이다. 특히 2절에서 흠정역은 “그 영에 궤홀/간사함이 없는 자”이지만, 아펜젤러는 문리본을 따라 “마음에 거짓 것이 없는 자”로 번역했다. 따라서 아펜젤러의 시편 저본은 문리본이었으며, 영어 역본을 참고했을 것이다. 즉 번역조사인 조한규가 문리본에서 초역한 본문을 아펜젤러가 함께 다듬었을 것이다.

둘째, 다음 <표 8>에 나오는 피터즈의 『시편촬요』 번역(1898년)과 비교하면, 피터즈는 전혀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문리본과 아펜젤러의 「회보」 번역을 무시하고 새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대본이 히브리어 성경이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언더우드의 1906년 『시편』 번역은 피터즈의 『시편촬요』 번역을 개정하되 일부 단어는 교체했다(예, 2절 궤홀→간사, 3절 잠잠할→자복지 아

니할). 문장의 구조도 제법 바뀌었다. 간혹 아펜젤러의 용어를 수용하기도 했다(예, 1절 돕는→돕혀주심을).

넷째, 1911년의 구역 시편은 1906년 언더우드 시편을 그대로 수용하고 일부 철자만 수정했다. 그러나 피터스가 마무리한 1938년 개역 성경의 시편은 27년 후의 번역이므로 단어와 어순과 구문 모두가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역 성경의 시편은 피터스의 『시편촬요』에서 더 많이 멀어졌다. 다시 말하면 구역 『구약전서』(1911)부터 피터스의 시편 번역의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했고, 개역 성경(1938)에 오면 32편의 경우 1절을 제외하면 연속성이 사라진 전혀 다른 번역이 되었다.

<표 8> 시편 32:1-5, 피터스 『시편촬요』, 언더우드 『시편』, 구역, 개역

절	피터스, 『시편촬요』(1898)	언더우드, 『시편』 (1906)	구역 시편(1911)	개역 시편(1938)
1	죄악의 사함을 얻으며 죄의 그 리움을 얻은 이 는 복이 잇는 이 로다	그 허물 사함을 얻으며 그 죄 덥 혀주심을 얻은 이는 복이 잇는 이로다	그 허물 사함을 얻으며 그 죄 덥 혀주심을 얻은 이 는 복 잇는 자로다	허물의 사함을 얻 고 그 죄의 가리 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2	여호와께 허물을 허물노 보시지 아니히심을 얻으 며 그 심령에 깨 흠함이 업는 사 람은 복이 잇는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죄를 주시지 아니하시 고 그 마음에 간 사함이 업는 자는 복 잇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죄를 주시지 아니하시 고 그 마음에 간 사함이 업는 자는 복 잇는 자로다	마음에 간사가 없 고 여호와께 정죄 를 당치 않은 자 는 복이 있도다
3	내가 잠잠할 때 에 내 뼈가 쇠하 니 종일 부르지 음을 인함이로다	내가 죄를 짓복 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 스오니 종일 부 르지음을 인함 이로다	내가 죄를 짓복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스 오니 종일 부르지 음을 인함이로다	내가 토설치 아니 할 때에 종일 신 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	대개 주의 손이 밤 낮으로 내게 무겁 게 림혀섯슴이어 나의 정기가 변하 야 여름 가뭄에 그	주께서 주야로 나를 중히 책망 하섯스니 나의 진익이 물나 너 름에 감음과 그	주께서 주야로 나 를 중히 책망하 섯스니 나의 진익이 물나 너름에 감음 과 그치 되었느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절	피터즈, 『시편촬요』(1898)	언더우드, 『시편』 (1906)	구역 시편 (1911)	개역 시편 (1938)
	르느 것 곳치 되엿 습느이다 (셀나)	치 되엿느니다 (셀나)	다 (셀나)	(셀라)
5	내가 내 죄를 주 씨 알니우고 내 허물을 숨기지 아니흐엿슴이어 내가 닐으되 내 죄악을 여호와씨 즈복하리라 흐엿 스매 주씨서 내 죄의 허물을 사 흐섯 습느이다 (셀나)	내가 내 죄를 주 씨 알외고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흐고 말흐기 를 내 허물을 여 호와씨 즈복하겠 다 흐엿스매 주 씨서 내 죄악을 샤흐섯느이다 (셀나)	내가 내 죄를 주 씨 알외고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 니흐고 말흐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 씨 즈복하겠다 흐 엿스매 주씨서 내 죄악을 샤흐섯느 이다 (셀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 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 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 하셨나이다 (셀 라)

5. 맺는말

아펜젤러는 이 논문 제2장에서 정리했듯이 선교사 사역 기간(1885~1902) 쉬지 않고 성경을 번역, 수정한 한글 성경 번역의 개척자였다. 초기 한글 신약전서 번역에 기초를 놓은 세 사람은 로스, 언더우드, 아펜젤러였는데, 아펜젤러는 1885~1893년 이수정본의 개정, 1889~1890년 로스본의 개정에 이어 1891년부터 서울의 조선성서번역사회 번역자로서 첫 위원회 역본인 마태복음을 번역, 1892년에 출판했으므로, 1880~1890년대 서울 번역본의 기초를 놓았다. 제3장의 논증대로 아펜젤러는 로스, 언더우드와 더불어 비평본문을 신약 번역에 도입한 선구자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 새롭게 밝힌 대로 아펜젤러는 존스와 더불어 한글 구약 번역의 효시로서, 1897년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시편을 번역했고, 1898년에 창세기 등 구약의 여러 본문을 발췌, 번역하여 「조선(대한)크리스도인회보」의 지면에 발행했다. 그동안 피터즈를 구약 번역의 효시로 보았으나 구약 번역 본문을 처음 활자로 발간한 자는 존스와 아펜젤러로 수정하고, 구약 번역에 기초를 놓은 자로 존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피터즈 4인의 공헌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아펜젤러, 비평본문, 조선크리스도인회보, 구약 번역, 존스, 피터즈.

H. G. Appenzeller, critical text, *Korean Christian Advocate*,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G. H. Jones, A. A. Pieters.

(투고 일자: 2024년 7월 26일, 심사 일자: 2024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0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 김중은, “구약(舊約) 국역사(國譯史)에서 Alex. A. Pieters의 위치와 의의”, 『구약논단』 27 (2008), 159-182.
- 김중은, “최초의 구약 국역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즈”, 『교회와 신학』 XIII (1981), 29-42.
- “레비례식”,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 1. 12.
- “레비일공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 3. 30.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30:12 (1986. 12), 108-118.
-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7 (2010), 5-38.
- 민영진, “<改訳> 사무엘上·下의 原訳本: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실린 사무엘 상하의 MT 반영 정도 및 1, 2차 개정 본문과의 비교”, 『신학과 세계』 14 (1987), 5-42.
- 민휴(閔休, H. Miller), “조선어 성경의 유래”, 류형기 편, 『단권성서주석』, 53-58, 경성: 신생사, 1934.
- 박준서, 『최초의 한국어 구약성경 번역자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 “사울노 이스라엘 첫지 님군”,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2. 2.
- 옥성득, “1887년 개정판 『마가의전 혼복음서언해』 고찰”, 『성경원문연구』 38 (2016), 119-137.
- 옥성득, “로스본을 비평 본문에서 번역하다(1882~1887년)”, 『좋은나무』, 2022. 7. 11.
-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유경민, “로스 번역본을 수정한 아펜젤러 『누가복음전』(1890)의 문법, 음운, 어휘 요소의 수정과 교체”, 『우리말연구』 36 (2014), 29-57.
- “제물포 교회론”,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 6. 2.
- A. Kenmure’s letter to W. Wright, 1897. 2. 6.
-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the USA*, New York: MEC, 1895-1899.
- Appenzeller, H. G., “Notebooks, Item 1885”, Henry G. Appenzeller Papers, Mission

- Research Library, Union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Cheyney, T. K., et al., eds., *The Variorum Bible: The Authorized Version edited with Various Renderings and Readings from the Best Authorities*, New York: E. & J. B. Young & Co., 1888.
- Committee for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 “Minutes”, February 7, 1887.
- G. H. Jones’s letter to Dr. A. B. Leonard, 1896. 10. 28.
- G. H. Jones’s letter to N. T. Smith, 1896. 12. 7.
- Griffis, W. E.,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New York: Revell, 1912.
- H. G. Appenzeller’s Diary, 1887. 2. 8.
- H. G. Appenzeller’s letter to Dr. E. W. Gilman, 1887. 8. 9.
- H. G. Appenzeller’s letter to W. B. Scranton, 1897. 9. 15.
- H. G. Underwood’s letter to A. J. Brown, 1905. 11. 15.
- H. Loomis’s letter to E. W. Gilman, 1886. 5. 14.
- H. Loomis’s letter to E. W. Gilman, 1893. 3. 8.
- H. Loomis’s letter to E. W. Gilman, 1899. 1. 18.
- Pieters, Alex. A., “Annual Report of Alex. A. Pieters for the year 1925~26”, Pieters Papers,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Philadelphia, PA, USA.
- Pieters, Alex. A., “First Translations”, *Korea Mission Field* 34:5 (May 1938), 91-93.
- Pieters, Alex. A.,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Korea Mission Field* (May 1940), 78-82.
- “Report XIII—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Journal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C* (1898), 50.
- Reynolds, W. D.,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n”, *Korea Review* (May 1906), 171.
- Scranton, W. B.,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 Mission of M. E. Church”, *Korean Repository* (July 1898), 256-269.
- Scranton, W. B., letter to Henry Loomis, Oct. 8, 1887.
- “The Printing of the Scriptures”, *Bible Society Record* (New York: May 1916), 109.
- W. B. Scranton’s letter to Dr. Leonard, 1897. 5. 20.
- W. B. Scranton’s letter to H. Loomis, 1887. 10. 8.

<Abstract>

**H. G. Appenzeller's Bible Translation, 1885~1902:
Founder of the Seoul Version, Pioneer of the Critical Text and
Trailblazer of Old Testament Translation**

Sung Deuk Oak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This paper investigates three topics related to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Bible by Henry Gerhard Appenzeller (February 6, 1858~June 11, 1902). Chapter 2 provides a chronological summary of Appenzeller's contributions during his missionary service from 1885 to 1902, focusing on the specific parts of the Bible he translated and his positions on some major controversies. This section reorganizes and clarifies existing research. Chapter 3 examines Appenzeller's use of source texts and biblical criticism, thereby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Old Testament translation sources and criticism texts up to 1938. Chapter 4 discusses Appenzeller'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extracted chapters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weekly Sunday Bible study in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beginning in February 1897, proposing this as the second earliest Korean Old Testament translation, after G. H. Jones' 1893 tract, *Study of the Old Testament*. While Chapter 2 primarily consolidates existing research and addresses some misunderstandings, Chapters 3 and 4 introduce new arguments that challenge existing understandings. Given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studies on Appenzeller's contributions to Bible translation, this paper aims to fill that scholarly gap.

Appenzeller was one of the pioneers in Korean Bible translation, continually translating and revising the Scriptures throughout his missionary service (1885~1902). John Ross, H. G. Underwood, and H. G. Appenzeller can be identified as the foundational figures in the early translation of the Korean New Testament. As argued in Chapter 3, Appenzeller, alongside Ross and Underwood, was a pioneer in incorporating critical texts into New Testament translation. Furthermore, as newly revealed in Chapter 4, Appenzeller should be regarded as the one of the trailblazers of the Korean Old Testament translation, having translated and published various extracted Old Testament texts, including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Samuel, the First Book of Kings, and the Psalms in 1897, and Genesis in 1898, in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Although Alexander Pieters has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the pioneer of Old Testament translation, this recognition should be corrected to acknowledge G. H. Jones and Appenzeller as the first two translators to publish Old Testament texts. The contributions of Jones, Appenzeller, Underwood, and Pieters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Old Testament translation should be re-evaluated.